

# みんなくりポジトリ

国立民族学博物館学術情報リポジトリ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 新「朝鮮半島の文化」展示

メタデータ	言語: Japanese 出版者: 公開日: 2009-04-28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朝倉, 敏夫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a href="https://doi.org/10.15021/00002218">https://doi.org/10.15021/00002218</a>

## 新「朝鮮半島の文化」展示

朝倉敏夫（国立民族学博物館）

### ・はじめに

国際シンポジウム「日本における韓国文化の表象」をはじめるとあたり、国立民族学博物館の「東アジア」常設展示場にある「朝鮮半島の文化」展示の展示替えについて全体的経緯の概略を報告する。

### ・共同研究会の立ちあげ

「朝鮮半島の文化」展示プロジェクトチームは、平成9年度から「『もの』を通して見た朝鮮民俗文化」というタイトルで共同研究会を組織し、日本各地の大学、美術館における韓国文化研究者に参加していただき、研究発表と同時に（『「もの」から見た朝鮮民俗文化』新幹社から平成12年8月に刊行予定）、それぞれの分担項目に関し収集・展示に関するアイデアを出してもらった。また、平成10年12月から客員研究者として韓国国立民俗博物館の金時徳学芸士を1年間招請し、展示に関するアドバイスを受けた。

### ・民博の展示コンセプト

これまでの民博の展示コンセプトは、次の5点にあるように思う。

1. 大阪万博の実例をもとに露出展示の決断、2. 展示の三段階進化論（宝物—生態的—構造）の三段階＝構造展示、3. 「ラティスの構造」を受けて、グリッドシステムを展示の基本、4. 展示資料をひきたてる黒衣の展示装置、5. クソリアリズムに徹した生活情景再現模型、である。

### ・従来の「朝鮮半島の文化」展示

朝鮮半島の文化展示は、昭和58年3月に第8展示場が竣工され、同年11月に一般公開された。当時のプロジェクト・リーダーである祖父江孝男先生は、「この地域の展示の基本プリンシプルとしては、現代の韓国の精神生活における二つの基本的な枠組

## 新「朝鮮半島의 文化」展示

朝倉敏夫(国立民族学博物館)

### ·머리말

국제 심포지움 「일본에서의 한국 문화의 표상」을 시작하는데 앞서 국립 민족 박물관의 「東아시아」 상설 전시장에 설치된 「한반도 문화」의 전시 변경에 관한 전체적인 경위를 개략해 보고하겠다.

### ·공동 연구회의 출범

「한반도 문화」 전시 프로젝트 팀은 1997 년부터 『『물건』을 통해서 본 조선 민속 문화』의 타이틀로 공동 연구를 조직하여 일본 각지의 대학과 미술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 문화 연구자 여러분의 참가와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발표와 함께 (『『물건』을 통해서 본 조선 민속 문화』新幹社・2000 년 8 월 간행 예정)각각의 분담 항목에 대해 수집·전시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왔다. 또한 1998 년 12 월부터 객원 연구자 자격으로 한국 국립 민족 박물관의 金時德학예사를 일년간 초청하여 전시에 관한 조언을 들었다.

### ·민박의 전시 구상

지금까지 민박의 전시 구상은 다음의 다섯가지 점으로 나눌 수 있다.

1. 오사카 万博의 실례를 바탕으로 한 노출 전시의 결단, 2. 전시의 3 단계 진화론(宝物 — 生態的 — 構造) 의 3 단계 =구조 전시, 3. 「래티스(lattice) 구조」를 받아 들여 그리드(grid) 시스템을 전시의 기본으로 설정, 4. 전시 자료를 돋보이게 하는 黒衣의 전시 장치, 5. 유치리 얼리즘에 입각한 생활 정경의 재현 모형이다.

### ·종래의 「한반도 문화」 전시

한반도 문화 전시는 1983 년 3 월 제 8 전시장이 준공 되어 같은 해 11 월에 일반 공개 되었다. 당시의 프로젝트 리더인 祖父江孝男선생님은 「이 지역 전시의 기본 원칙은 현재의 한국 정신 생활의 기본적인 틀이 되고 있는 『민간 신앙』 과 『유교』를 커다란 축으로 하여, 그 둘 사이의 衣食住 물질 문화를 배열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했다」[祖父江 1984 「東아시아 (朝鮮半島의 문화) 전시」 『국립 민족학 박물관 10 년사』:p. 299]고 기술하고 있다. 그 전시 구성

となっている『民間信仰』と『儒教』の二つを大きな柱とし、それらの間に衣食住の物質文化を配列して、韓国の文化の構造を示すようにつとめた」〔祖父江 1984「東アジア（朝鮮半島の文化）展示」『国立民族学博物館十年史』：p. 299〕と述べている。その展示構成は、民間信仰、芸能、食生活、住生活、衣生活、儒教からなっており、展示コーナーは図のようである〈図1〉。

#### ・民博の展示計画

新しい展示のプリンシプルは、民博における常設展展示替えの全体的方向を見据えて、以下の3つの基本的な認識に立脚して考えることにした。

(1)現代文化の展示：今回の展示替えは、第7展示場の開設にともない、南アジアが新設され、東南アジアがリニューアルされたのに引き続いて行われた。南アジア、東南アジア展示から、これまで不文律であったプラスチック以前の伝統的社会における文化の展示から現代文化を視野に入れた展示への転換があり、朝鮮半島の文化展示においても現代文化の展示を念頭におくことにした。

(2)既存の展示の最大限活用：予算の問題を含めて、既存の展示資料およびすでに民博に収蔵されている標本資料を最大限活用することで、新規に収集する標本資料をできるだけ少なくするようにした。

(3)パティオの利用：パティオはこれまで朝鮮半島の文化展示の一部として文人像とトルハルバンの展示に利用されてきており、今後も継続して朝鮮半島の文化展示の場として利用させてもらうことにした。

#### ・新「朝鮮半島の文化」展示の構想

こうした基本認識をもとに、それぞれより具体的にどのような展示にすべきかを考察した。

(1)朝鮮半島の文化は五千年の歴史をもつといわれ、巫俗文化を基層文化とし、仏教文化、儒教文化、キリスト教文化、そして日本の植民地文化と、外来文化が時代の流れの中で受容され形成されてきた。そして韓国社会の現代文化は、これら諸々の文化伝統が一種のシンクレティスティックな状況で、そのなかからある種の正統性を付与される対象として、儒教の文化伝統なり、仏教の文化伝統なり、あるいは巫俗や民俗文化の伝統というものが再構成されている。換言すれば、「伝統」を過去の残滓ではなく、現在の時点で活動中の文化的な力として「意味ある過去」と規定すると、

은 민간신앙, 예능, 식생활, 주생활, 의생활, 유교에 입각하고 있으며 전시 코너는 <그림 1>과 같다.

#### · 민박의 전시 계획

새로운 전시 원칙은 민박의 상설 전시 변경의 전체적인 방향을 염두에 두며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본 인식에 입각하기로 했다.

(1)현대 문화의 전시 : 이번 전시 변경은 제 7 전시장의 개설에 따라 동아시아가 신설 되고 동남 아시아가 새롭게 단장 된 것에 뒤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시부터 지금까지 불문율이었던 프라스틱 도입 이전의 전통적 사회의 문화 전시로부터 현대 문화의 전시까지 시야에 넣는 전시 전환이 있었으나, 이번의 한반도 문화 전시에도 현대 문화 전시를 염두에 두도록 하였다.

(2)기존 전시의 최대한 활용 : 예산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기존의 전시 자료 및 이전부터 민박에 소장 되어 있는 표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신규의 표본 자료는 가능한 적게 수집하도록 하였다.

(3)파티오 이용 : 파티오는 지금까지 한반도 문화 전시의 일부분으로써 문인상과 돌하루방전시에 이용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한반도 문화 전시의 장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 · 新「한반도 문화」 전시의 구상

이와 같은 기본 인식에 입각하여 더욱 구체적인 전시로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1) 오천년의 역사를 지니는 한반도 문화는 무속 문화를 기층으로 하여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기독교 문화,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문화와 외래 문화 등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수용·형성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의 현대 문화는 이러한 제반의 문화 전통이 일종의 절충된 상황 속에서 정통성을 부여 받은 대상으로써의 유교 문화 전통과 불교 문화 전통으로, 또는 무속과 민속 문화라는 전통으로 재구성 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전통」을 과거의 잔재가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활동하는 문화적 힘으로써의 「의미 있는 과거」로 규정하자면 「전통」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현대 문화로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 전시는 그러한 제반의 문화 전통을 유사역사적으로 구분해 전시하는 것 보다 각각의 문화 전통이 공시적인

「伝統」こそが韓国社会の現代文化ということになる。

こうした文化の展示にあたっては、これら諸々の文化伝統を疑似歴史的な区分で展示するよりも、諸々の文化伝統が共時的な次元でいかなる形で併存し相互作用しあっているか確認できる展示が望ましいという意見が出されたが、一つ一つの文化伝統をコーナー別に分けて展示するほうが、小中学生には朝鮮半島の文化の多重性が理解しやすくなる。と同時に、コーナー別に分けて展示することで、例えば朝鮮半島での仏教文化を南アジア、東南アジアの仏教と比較してみるというように、ある文化項目を他地域の展示との比較の視点でみることもできるようになると考えた。

#### ・具体的展示案

具体的な展示の配置は、当初、次のように考えた。

(1) 展示場に入って向かって左壁に、まずイントロダクションとして韓国文化を象徴する展示と海外のコリアンを展示する。ついで現代文化、そして植民地時代の文化、キリスト教文化、儒教文化、仏教文化と、外来文化の伝来の順に時代を遡るように配列し、最も奥に基層文化である巫俗文化を展示していく。

こうした展示配列により、朝鮮半島における歴史文化を辿ると同時に、現代韓国文化の多重性を知ることができる。

(2) 農楽、生産用具、婚礼、チャンスン・ソツテ、食生活、調度品（一部）、仮面劇、平生図、祭祀床などは、既存の展示をそのまま活かすことにする。ただし、その位置は展示内容の文化的意味が相互に関連するものを近くに配置するように移動させる。

(3) 中央空間部には衣食住を中心に人々の暮らしを展示することにする。まず住文化の一つとして済州島民家模型を、ついで生産用具の展示をすることで、生活風景を想像できるようにする。その右方にパティオへの入り口があり、チャンスン・ソツテを置き、村の入り口から入るとパティオ内に酒幕がある。これらチャンスン・ソツテと酒幕は住文化の範疇に入れる。つぎに生活文化の中心をなす食文化の展示を配置する。この食文化展示は、基本的に従来からの展示そのままであるが、一部修正する。そして、中央空間部の後部を衣文化とするが、ここには人生儀礼を展示し、トル、婚礼に加えて、これまでなかった喪礼（葬礼）に関する資料を配置し、儀礼服を中心にした衣文化を表現する。

(4) 右壁面の展示も左壁面の展示と関連の深いものを向かい合わせに対応させる。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로 병존하여 상호 작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가 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각각의 문화 전통을 코너별로 나누어 전시하는 편이 초·중학생들에게 한반도 문화의 다중성을 쉽게 이해 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코너별로 나누어 전시 함으로써 예를들면 한반도의 불교 문화를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불교와 비교해 보는 것처럼 한 문화 항목을 다른 지역의 전시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시점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 구체적 전시案

구체적 전시 배치는 당시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1)전시장에 들어가 좌측 벽면에는 우선 도입부로서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전시물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전시한다. 다음에 현대 문화, 식민지 시대의 문화, 기독교 문화, 유교 문화, 그리고 불교 문화와 외래 문화의 전래 순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배치시키고 가장 안쪽에는 기층 문화인 무속 문화를 전시한다.

이러한 전시 배열은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현대 한국 문화의 多重性을 이해시켜 준다.

(2)농악, 생산용구, 혼례, 장승·숫대, 식생활, 세간 (일부), 가면극, 평생도, 제삿상 등은 기존의 전시를 그대로 활용한다. 단, 그것의 위치는 전시 내용의 문화적인 의미가 상호 관련되는 것에 가깝도록 배치한다.

(3)중앙의 공간에는 衣食住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생활을 전시 한다. 우선 住문화의 하나인 제주도의 민가 모형을, 그 다음은 생산 용구의 전시를 통해 생활 풍경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파티오의 입구가 있으며 장승·숫대가 위치한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파티오 안에 주막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장승·숫대와 주막은 住문화의 범주에 넣는다. 다음은 생활 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食문화의 전시를 배치한다. 食문화는 기본적으로 종래의 전시 그대로이나 일부를 수정한다. 그리고 중앙 공간의 뒷쪽 부분을 衣문화로 하고 여기서는 인생 의례를 전시하고 돌과 혼례에 추가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喪禮 (상례)에 관한 자료를 배치하며 의례복을 중심으로 한 衣문화를 표현한다.

(4)우측 벽면은 좌측 벽면의 전시와 관련이 깊은 것을 마

例えば儒教の教えを体現する両班の人生の理想を描いた「平生図」を儒教文化の向かいに、両班や僧を風刺した「仮面劇」を儒教文化と仏教文化の向かいに、巫楽器と同様の楽器を使う「農楽」を巫俗文化の右隣に移動させる。

(5)パティオは、参加型、体験型の展示にとって有用な空間となりうるし、休憩所として利用することもできる。例えば、子どもの遊び、楽器演奏などができる、オンドルの暖かさを体感する、朝鮮半島の文化についてディスカッションできる、などの多様な機能をもたせることができる空間にする。

#### ・収集方針

上記のような新しい展示についての基本認識をもって、共同研究員から収集すべき標本を以下の13の項目に分けて、どのような資料を収集したらよいかについて、できるだけ具体的な品目を書いてもらうように依頼し、アンケート形式で答えてもらった。13項目は、1.衣、2.食、3.住、4.生産用具、5.日用雑貨、6.人生儀礼、7.歳時風俗、8.宗教・信仰、8-1.キリスト教文化、8-2.儒教文化、8-3.仏教文化、8-4.巫俗文化、8-5.その他、9.芸能、10.都市文化、11.日本の植民地文化、12.海外のコリアン、13.その他 である。

アンケートに記載された内容を整理し、収集すべき標本のリストを作成し、共同研究員に提示した。この時、11.日本の植民地文化というコーナーは、ぜひ展示を実現させたいが、議論すべき点も多く、韓国における日本文化というコーナー名に変更した方がよいとの意見が出された。

アンケートであげられた収集すべき標本のリストはここでは省略するが、ここで議論された収集方針をもとに、平成9・10年度の予算により、これまで未収集であった、巫俗文化のクッ、仏教文化、キリスト教文化、人生儀礼のうち喪礼（葬礼）、酒幕関係の標本を重点的に収集した。収集では、大東文化財研究所の宋聖熙先生、甲子園大学の岡田浩樹先生に協力していただいた。

#### ・展示設計

収集後、ほぼ当初の展示構想に準拠するものの、展示コーナーのうち「海外のコリアン」と「韓国における日本文化」を「民俗工芸」と「スポーツ文化」に変更した。その結果、新しい展示は<図2>のような設計となった。

주보도록 배치시킨다. 예를들어, 유교의 가르침을 體現하는 양반의 이상을 그린 「평생도」는 유교 문화 쪽으로, 양반과 승려를 풍자한 「가면극」은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쪽으로, 무악기와 같은 악기를 사용하는 「농악」은 무속 문화의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5)파티오는 참가형과 체험형의 전시에서 유용한 공간이 되며 휴게소로도 이용 할 수 있다. 예를들면, 아이들의 놀이, 악기 연주, 온돌의 따뜻함을 체험하는 일, 한반도의 문화에 관한 토론,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 공간이 되게 한다.

#### · 수집 방침

위와 같은 새로운 전시의 기본 인식 하에 공동 연구원이 수집해야 할 표본을 열세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에 대해 될 수 있으면 구체적인 항목으로 양케이트 조사 했다. 열세가지 항목은 1. 衣, 2. 食, 3. 住, 4. 생산용구, 5. 일용잡화, 6. 인생의례, 7. 세시풍속, 8. 종교·신앙(8-1.기독교문화, 8-2.유교문화, 8-3.불교문화, 8-4.무속문화, 8-5.그 외), 9.예능, 10.도시문화, 11.일본의 식민지문화, 12.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13.그 외이다.

양케이트의 게재 내용을 정리하고 수집할 표본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동 연구원에게 제시했다. 이때 11.일본의 식민지문화 코너의 전시는 꼭 실현시키고 싶었으나 논의할 점이 많은 이유로 한국에서의 일본 문화라는 코너명으로 변경시키자는 의견이 나왔다.

양케이트에 게재된 수집 표본 리스트는 생략하겠지만, 거기서 논의된 수집 방침을 근본으로 1997년과 1998년의 예산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미수집이었던 무속문화의 굿, 불교문화, 기독교문화, 인생의례안의 喪禮(장례),주막 관계의 표본을 중점적으로 수집하였다. 수집 과정에서 大東문화재 연구소의 宋聖熙선생과 甲子園대학의 岡田浩樹선생의 협력을 받았다.

#### · 전시 설계

수집 결과는 처음 구상한 대로 였으나, 전시 코너안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서의 일본 문화」는 각각 「민속 문화」와 「스포츠 문화」로 변경하였습니다. 그결과 새로운 전시는 <그림 2>와 같이 설계 했다.

## ・展示替えの目玉

既存の展示を活用し、あまり大規模な展示替えにならないようにという方針だったが、模様替えをしたということがはっきりと分かるような展示となるよう腐心した。そのため目玉は二つあると考えた。

(1) 済州島民家模型の移動である。済州島民家模型は大阪に済州島出身者が多く居住することから製作展示されたが、展示が中央部に位置することもあって、韓国人からは「済州島民家は韓国の民家を代表するものではない」と強い抗議をうけたこともあった。そこで生態学的条件の類似する沖縄の民家模型との比較を容易にさせるとともに、済州島の地理的な位置感覚をもたせるために、日本展示の沖縄の民家模型に近い入り口部に移動させた。このことにより、休憩所から朝鮮半島文化の展示への誘導が明確になるとともに、民家模型の上部に設置された照明装置が撤去され、中央部の障害物がなくなり入り口部から最奥部まで見通しがよくなるという副次的効果を得ることができた。

(2) パティオでの展示である。これまでパティオには入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が、パティオに出られるようにし、そこで生活様式の一端を実際に体験できる展示をしたと考えた\*1。

そして、酒幕を選択した。酒幕とは、路傍で酒食を売り、客を泊める家であり、伝統社会において旅人にとってなくてはならない休息の場であった。旅人のみならず、行商をして歩く裸負商たち、科挙（官吏の採用試験）を受けに行く人、それに落ちて帰る人、酒幕はそれらの人々の情報交換の場であるとともに、人生の喜怒哀楽を知る場でもあった。この酒幕を展示することで、伝統社会の生活様式の一端を体験してもらうとともに、中央集権体制下での固定した社会というイメージで捉えられがちな朝鮮の伝統社会における移動する人々の存在を考えてもらうきっかけを作るといふねらいもある。

かつての酒幕の姿は、現在の韓国社会からは姿を消しつつあるが、何カ所の酒幕の調査の結果、韓国国立民俗博物館元館長である孟仁在先生の諮問を受け、忠清南道のある酒幕を再現展示することにし、忠清南道出身の大工たちによって竣工した。

酒幕を実際に建てるには問題がないわけではなかった。一つは、酒幕の屋根の問題である。酒幕の本来の雰囲気を醸し出すためには草葺き屋根でなければならないが、草葺きにした場合、何年かに一度葺き替えをしなければならず、防虫処理などもほどこさなければならない。瓦やスレートの屋根では、酒幕の雰囲気がでないばかりか、

### ·전시 변경의 핵심

기존의 전시를 활용하여 그다지 큰 전시 변경이 되지 않도록 했으나 모양 대체의 시도를 확실히 알수 있게 해주는 전시가 되도록 고심하였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위한 핵심에는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1)첫째는, 제주도 민가 모형입니다. 제주도의 민가 모형은 제주도 출신자가 오사카에 많이 거주하는 이유로 제작·전시 되었으나, 전시가 중앙부에 위치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로 부터 「제주도 민가는 한국의 민가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강한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생태학적 조건이 유사한 오키나와 민가 모형과 비교되기 쉽게 하고 제주도의 지리적인 위치 감각을 살리기 위해 일본 전시의 오키나와 민가 모형과 가까운 입구 쪽으로 이동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휴게소로부터 한반도 문화 전시 쪽으로의 유도가 명확해짐과 동시에 민가 모형의 윗부분에 설치된 조명 장치가 철거되고 중앙부의 장해물이 없어지게 되어 입구로부터 가장 깊숙한 안쪽까지도 전망이 좋아지는 부차적인 효과도 얻었다.

(2)둘째는, 파티오 안의 전시이다. 지금까지는 파티오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들어갈 수 있도록하고 그곳에서 생활의 일부분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되도록 고안하였다\*1.

또한 주막을 선택한 일을 들 수 있다. 주막이란 길가에서 술과 먹을 거리를 팔며 손님을 묵게하는 집으로 전통 사회의 길손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휴식처였다. 길손 뿐만 아니라 행상을 하며 떠도는 보부상, 과거(관리의 채용 시험)를 받으러 가는 사람, 과거에 떨어져 돌아오는 사람 등 주막은 그런 사람들의 정보 교환 장소가 됨과 동시에 인생의 희로애락을 얻게 해주는 장소이기도 했다. 이러한 주막을 전시 함으로써 전통 사회의 생활 양식의 일면을 체험시키고 중앙 집권 체제하의 고정된 사회 이미지가 강한 조선의 전통 사회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는 기회도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예전과 같은 주막의 모습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만 몇몇의 주막을 조사하는 중, 한국 국립 민속 박물관의 前관장인 孟仁在 선생님의 자문을 받아 충청남도의 한 주막을 재현 전시하게 됐으며 충청남도 출신의 목수들에 의해 준공되었다.

주막을 실제로 짓는 작업에는 문제가 없는 것 만은 아니었다. 첫째는, 주막의 지붕에 관한 문제이다. 주막의 본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초가지붕이 적격이었으나 초가로 지을 경우, 몇년에 한번씩 초가

酒幕がそうしたものであるかという誤解を生じかねない。アクリル、ガラス張りなども検討したが、草葺きの曲線の表現と耐久性を考え銅板を利用することにした。二つは、パティオの防水工事と排水工事、館内展示場にある資料保存の問題から二重扉の設置、非常時の来館者誘導のため非常出口の二カ所設置、身体障害者が車椅子に乗って見学できるようにスロープ、手すりなどの設置の問題である。

#### ・展示技法

展示技法についてはことさらに新しく開発したものはない。しいて言えば、古くて新しい展示を目指したといえるかもしれない。

##### (1) 「みんなく電子ガイド」の活用

民博の展示は「もの」との対話を重視し、解説プレートがほとんどつけられずにきた\*2。これに対し、より詳しい標本資料の解説を求める声もあった。

今回の展示においては、ことに基本コンセプトにもとづく展示物の配置の説明をはじめ、コーナーごとの文化的背景の解説の必要性を強く感じているものの、あえて展示場にマルチ・メディアなどの機器はおかず、グラフィックも極力少なくすることにした。これはあくまでも「もの」との対話という基本的な姿勢を保ちたいということと同時に、1999年5月13日から展示場において利用されている「みんなく電子ガイド」\*3 を積極的に活用したいと考えたからである。

新展示場のオープンに先駆けて既存の展示場で「みんなく電子ガイド」が公開されたため、新展示に移行される「儒教祭祀」「トル」「婚礼」「チャンスン・ソツテ」「仮面劇」「農楽」「済州島民家」「食文化」「平生図」など12の展示については、コンテンツを作成しておいた。新展示のためには、各コーナーごとの文化的背景、個々の展示品の解説など、「みんなく電子ガイド」のコンテンツを約20ほどさらに作成した。

また「ビデオテーク」も、既存の16本に加え、嶋陸奥彦（東北大）・劉明基（慶北大）両教授の協力で儒教式の祖先祭祀に関し2本、映像作家の金英煥氏の協力で巫俗に関し2本、野辺送り、古希祝いと、計6本のコンテンツを新たに作成した。

「みんなく電子ガイド」に全面的に解説を依拠することに問題がないわけではない。それはその利用状況との関係である。「みんなく電子ガイド」を利用しない来館者には、他に解説がほとんどないため、わかりにくい展示になってしまうおそれがあり、利用を促進する手だて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る。

를 같이 주어야 하며 방충 처리 등의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기와나 슬레이트 지붕은 주막의 분위기가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주막이 그런 것인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아크릴이나 유리를 끼우는 등의 방법들도 검토해 보았으나 결국 초가의 곡선 표현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동판을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둘째는, 파티오의 방수 공사와 배수 공사 그리고 관내 전시장에 있는 자료 보존의 문제를 위한 이중문의 설치, 비상시 내관자의 유도를 위한 두군데 비상구 설치, 신체 장애자가 휠체어를 타고 견학 할 수 있는 슬로프와 손잡이를 설치하는 일, 등의 문제이다.

#### ·전시 기법

전시 기법은 특별히 새롭게 개발된 것은 아니나, 구태여 말하자면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추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 (1)「민박 전자 가이드」의 활용

민박의 전시는 「물건」과의 대화를 중요시하여 해설표를 거의 부착해 오지 않고 있다\*2. 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표본 자료의 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번 전시는 특히, 기본 구상에 의거하여 전시물 배치의 설명을 비롯한 코너별 문화 배경에 관한 해설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전시장에 멀티·미디어 등의 기기를 두지 않았으며 그래픽도 될 수 있으면 적게 두게 하였다. 이것은 어디까지 「물건」과의 대화라는 기본 자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1999년 5월 13일부터 전시장에서 이용 되어 온「민박 전자 가이드」\*3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新전시장 오픈에 앞서 기존의 전시장에서 「민박 전자 가이드」가 공개 되었기 때문에 新전시장으로 이행되는 「유교 제례」 「돌」 「혼례」 「장승·숫대」 「가면극」 「농악」 「제주도 민가」 「식문화」 「평생도」 등 열두가지 전시에 관해서는 내용을 작성해 두었다. 新전시를 위해 각 코너별로 문화적 배경과 개개 전시품의 해설등 「민박 전자 가이드」의 내용을 약 스무개 정도 작성했다.

또한 「비디오테크」도 기존의 열여섯개에 더하여 嶋陸典彦(東北大)·劉明基(慶北大) 두교수님의 협력으로 유교식 선조 제례에 관해 두개, 영상 작가 金英煥氏의 협력으로 무속에 관해 두개, 장승과 고희연 등 합계 여섯개의 내용을 새롭게 작성하였다.

「민박 전자 가이드」의 해설만을 의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 상황과의 관계이다. 「민박 전자 가이드」를 이

## (2)「対話」の場

酒幕は、朝鮮半島の伝統社会において、今日の飲み屋の機能、食堂、旅館の機能を兼ねたものだったが、いろいろな情報を伝えたりキャッチしたりするニュースセンターの役割をし、さらには人々が集まって簡単な余興を楽しむことのできる娯楽の場であり、いろいろな階層の人々が集まっては散らばる所であったため文化を伝達する場所としての役割もはたしてきた。こうした酒幕の機能をもたせ、酒幕でのイベントを通して、ここを単に休憩所として利用するのではなく、「対話の場」として活用しよう考えた。

## (3)体感展示

酒幕では、朝鮮半島を旅する人の気分を味わい、オンドルの暖かさを体感できるようにした。また、たとえば農楽の楽器を演奏したり（騒音の試験を試みなければならぬが）、農楽隊の帽子をかぶって帽子につく尾をまわしてみたり、子どもの遊びを実演してみるなど、イベントを通じた参加・体験型の展示を考えている。このほか、巫俗文化のコーナーで巫堂による告祀を実演、キリスト教文化や現代文化コーナーでの聖書、漫画などを手にとって読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などを検討している。

以上、1)「みんなく電子ガイド」の利用、2)パティオでの酒幕を使った「対話の場」、3)体感展示は、いずれも「朝鮮半島の文化」展示だけで半日以上を過ごしてもらえるようにという意図があつてのことである。

## ・今後の課題

今回の展示構想のなかで実現できなかったことを今後の課題としてあげておきたい。

(1)済州島民家模型を沖縄の民家模型の近くに移設したが、「日本の文化」展示プロジェクトと協議することで、この二つの模型の間にある「南島文化」のコーナーと連続させた「海の文化」の展示が可能になる。たとえば海女の習俗や筏などの在来船の展示は、朝鮮半島と日本、あるいは中国にまたがる共通点と相違点を明らかにしてくれるだろう。また、朝鮮半島は海から大陸への橋渡しの位置にあり、この「海の文化」の展示ができれば、生産用具の展示コーナーに火田民の文化、高麗人参など薬草、狩猟といった「山の文化」に焦点をあてた展示が可能になる。

(2)「韓国における日本文化」のコーナーは、植民地時代の文化が中心になるだろう。民博の展示としては、植民地支配の功罪を問おうとするものではなく、生活文化を通して、この時代を考察できるような展示が望ましいと考える。写真展示は可能だ

용하지 않는 내관자는 그외의 별다른 해설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알기 어려운 전시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그것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 (2)「대화」의 장

주막은 한반도의 전통 사회에서 오늘날의 술집, 식당, 여관의 기능을 함께 겸한 것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하거나 입수할 수 있는 뉴·센터의 역할도 했으며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모여 여흥을 즐기는 오락의 장이 되기도 했다. 또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이고 헤어지는 장이었기 때문에 문화를 전달하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수행 했다. 이와 같은 주막의 기능을 살리고, 또한 주막에서의 이벤트를 통해 그곳을 단지 휴게소만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 (3)체험 전시

주막은 한반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기분이 들 수 있도록 하고 온도의 따뜻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악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소음 시험을 해보지 않으면 안되지만) 농악대의 모자를 쓰고 모자에 달린 꼬리를 돌려 보거나 아이들의 놀이를 직접 즐겨 보는 등, 이벤트를 통한 참가·체험형의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무속 문화 코너에서는 무당에 의한 고사를 실연, 기독교 문화와 현대 문화 코너에서는 성서와 만화 등을 직접 손에 들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검토를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1)「민박 전자 가이드」의 이용, (2)파티오의 주막을 이용한 「대화」의 장, (3) 체험 전시는 모두 「한반도 문화」의 전시만으로 한나절 이상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것이다.

### ·앞으로의 과제

이번 전시 구상에서 실현시킬 수 없었던 일들을 앞으로의 과제로 돌려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1)제주도 민가 모형을 오키나와 민가 모형에 가깝도록 옮겼으나 「일본 문화」전시 프로젝트 팀과 협의 함으로써 그 둘의 모형 사이에 있는 「남도 문화」코너와 연속시킨 「바다의 문화」가 전시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해녀의 습속이나 뗏목 등과 같은 재래선의 전시를 통해 한반도와 일본 또는 중국에 걸쳐진 공통점과 상이점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다. 또한 한반도는 바다와 대륙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が、「もの」でいかに展示するか、陶磁器、農具、船などには日本の植民地時代に影響を受けたものがあるが専門的になってしまうなど、議論が残されている。

(3)「海外のコリアン」のコーナーは、中国朝鮮族、中央アジアの高麗人、在米コリアン、在日韓国・朝鮮人の文化を展示することになり、これら諸地域の研究と標本資料の収集を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

(2)・(3)の二つのコーナーに関する研究と収集が進展するまで、「現代文化：スポーツ文化」と「民俗工芸」というコーナーで代替させるが、近い将来に当初の構想にそった展示にしたいと考えている。もちろん、この二コーナーの展示が完成されたからといって、その展示が文字通り常設化されるわけではない。めまぐるしく動く民族文化に対応して展示を変化させ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る。

#### ・おわりに

今回のシンポジウムでは、一日目は、韓国の研究者からさまざまな視点からの評価と批判をお願いした。二日目の午前には、今後の展示にむけての参考となるような討論が、午後には、今回のシンポジウムのタイトルである「日本における韓国文化の表象」について総合的な討論が行われるよう期待している。

#### <附記>

今回の展示にあたって、共同研究員の皆さまをはじめ、トータルメディア、日展、エスパ、エースインターナショナル、韓国の玄企画、そして本館の情報企画課、施設課など、多くの皆さまにご協力をいただいた。感謝いたします。

\*1 「各展示場の中心には一辺20mのパーティオを設ける。これは展示場内に必要な、やわらかい光を得るだけでなく、象徴的空間あるいは必要に応じて野外展示のための空間としても有効に利用する。さらに将来はこの展示パーティオに屋根を設け、一般市民がここで諸民族の生活様式の一部を実際に体験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もできるよう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바다의 문화」가 전시 가능하게 된다면 생산 용구의 전시 코너에 화전민의 문화, 고려인삼 등의 약초, 그리고 수렵 등 「산의 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전시가 가능해질 수 있다.

(2) 「한국에서의 일본 문화」코너는 식민지 시대의 문화가 중심이 되어질 것이다. 민박의 전시는 식민지 지배의 공죄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닌 생활 문화를 통해서 이 시대를 고찰 할 수 있는 전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진 전시는 가능하지만 「물건」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도자기, 농기구, 배 등은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영향을 받은 것이 있으나 깊이 들어가면 전문적인 내용으로 되버리는 점 등, 논의할 과제로 남아 있다.

(3)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코너는 중국 조선족,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재미 한국인, 재일 한국인·조선인의 문화를 전시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각 지역의 연구와 표본 자료의 수집을 진행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2)·(3) 두 코너에 관한 연구와 수집이 진전 될 때까지 「현대 문화: 스포츠 문화」와 「민속 공예」로 대체시킬 것이나 가까운 장래에 당초의 구상에 따른 전시가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물론 그런 코너가 완성 됐다고 해서 그 전시가 문자 그대로 상설화 되는 것은 아니다. 숨가쁘게 변해가는 민족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 ·맺음말

심포지움 첫날은 한국 연구자의 다양한 평가와 비평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날 오전은 앞으로의 전시를 위해 참고가 될 수 있는 토론을, 오후에는 이번 심포지움의 타이틀인 「일본에서의 한국 문화의 표상」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付記>

이번 전시를 치루는 데에는 공동 연구자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토탈 매디어, 日展, 에스파, 한국의 玄기획, 그리고 본 민족학 박물관의 정보 기획과와 시설과 등 많은 분들의 협력을 받았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 「각 전시장의 중심에는 한쪽이 20 m인 파티오를 설치한다. 이

配慮する」 [1982『国立民族学博物館における展示の基本構想』増刷版：p. 11]

\*2 「本館の展示においては、原則として一つ一つの標本資料を個別に説明するのではなく、標本資料を通して、その背後にある文化を語らしめるために、それぞれの文化をセットとして説明プレートをつけるものとし、個々の標本資料には名前プレートをつけて処理せんものとする」 [1982『国立民族学博物館における展示の基本構想』増刷版：p. 68]

\*3 「みんぱく電子ガイド」は、「専門家による案内を電子機器で実現しようと開発された携帯端末で、来館者がこの携帯端末を持って展示品の前に立つと、その端末にそれぞれの展示品の解説が、文字情報、静止画、動画、音響情報で現れるという装置である」 [栗田靖之 1999「‘みんぱく電子ガイドシステム’の開発」『民博通信』85：p. 44]。

것은 전시장 안에 필요한 부드러운 광선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 공간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내외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도 유효하게 이용한다. 나아가 장래에는 이 전시 파티오에 지붕을 설치하여 일반 시민이 그곳에서 각 민족의 생활 양식의 일면을 실제로 체험 할수 있도록 배려한다」 [1982『국립 민족학 박물관의 전시의 기본 구상』 추과 인쇄판 : p. 11]

\*2 「본 관의 전시는 원칙적으로 하나하나의 표본 자료를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 자료를 통해 그 배후에 있는 문화를 이해시켜 줄 수 있도록, 각각의 문화를 세트로써 해설판을 달도록 했으며 개개의 표본 자료는 이름표를 달아서 처리 못하도록 한다」 [1982『국립 민족학 박물관의 전시의 기본 구상』 추과 인쇄판 : p.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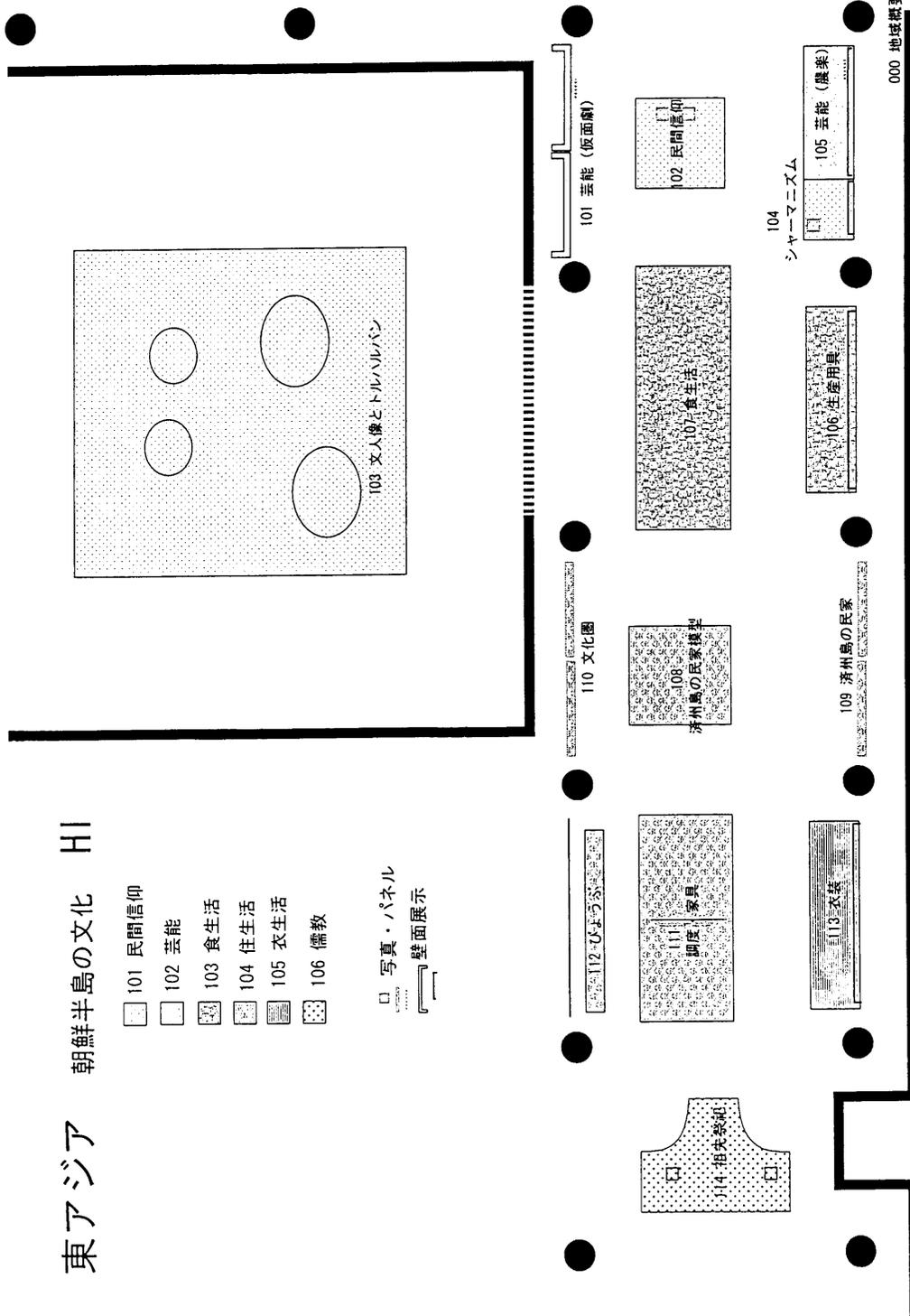
\*3 「민박 전시 가이드」는 「전문가에 의한 안내를 전자 기기로 실현시키고자 개발된 휴대용 단말로서 내관자가 이 휴대용 단말을 들고 전시품 앞에 서면 그 단말이 각각의 전시품의 해설을 문자, 정보, 정지화, 동면, 음향 정보로써 나타내 주는 장치이다」 [栗田靖之 1999 「『민박 전자 가이드 시스템』의 개발」 『민박 통신』 85 : p.44].

図1 1983年展示

# 東アジア 朝鮮半島の文化 HI

- 101 民間信仰
- 102 芸能
- 103 食生活
- 104 住生活
- 105 衣生活
- 106 儒教

□ 写真・パネル  
 壁面展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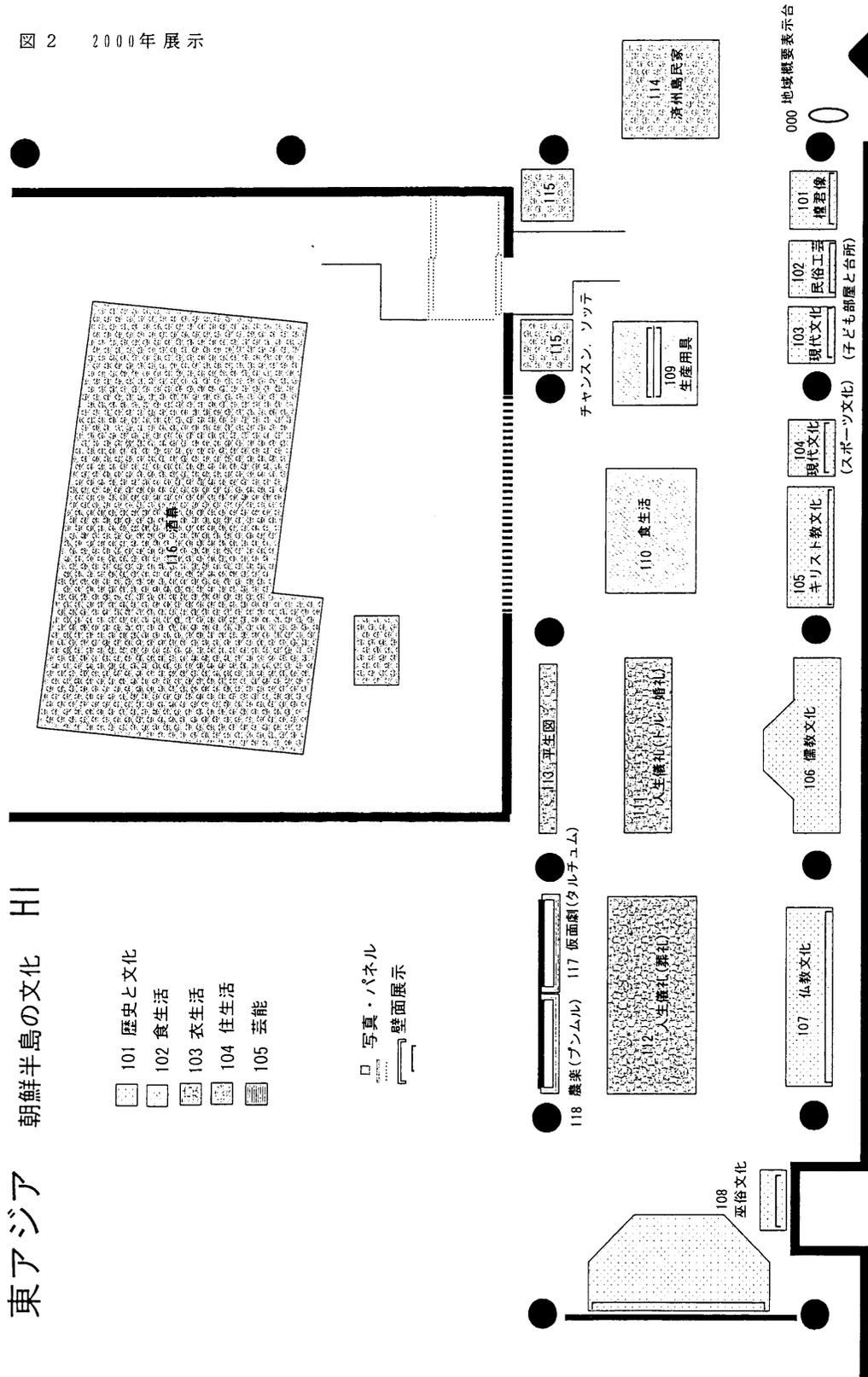


000 地域概要表示台

# 東アジア

## 朝鮮半島の文化 HI

図 2 2000年展示



- 101 歴史と文化
- 102 食生活
- 103 衣生活
- 104 住生活
- 105 芸能

- 写真・パネル
- 壁面展示

000 地域概要表示台

101 権君像

102 民俗工芸

103 現代文化

104 現代文化

105 キリスト教文化

106 儒教文化

107 仏教文化

108 巫俗文化

109 生産用具

110 食生活

111 人生儀礼(葬礼)

112 人生儀礼(婚礼)

113 平生図

114 済州島民家

115

116 酒樽

117 仮面劇(タルチュム)

118 農薬(ブナムル)

(スポーツ文化) (子ども部屋と台所)



## 表1 展示コーナーごとの内容

### A.左壁面：＜歴史と文化＞

(108) 巫俗文化：韓国人の感情、喜怒哀楽を表現したい。

- ・クッパンの再現

(107) 仏教文化：3面

- ・寺
- ・民俗仏教
- ・現代の仏教

(106) 儒教文化：

- ・祭祀床（既存）：これまでの展示と逆向きに祭祀床を置き、スクリーンによって祭祀者を表現し、来館者が被祭祀者となるように展示する。
- ・誌石
- ・両班の調度品（キセル、筆など）（既存）

(105) キリ基督教文化：2面

- ・カトリック：家庭の祭壇
- ・プロテスタント：多くの宗派  
社会問題としてのキリ基督教にならないように留意する。

(104) 現代文化（スポーツ）→韓国における日本文化（植民地時代の文化）：1面

- ・プロ野球、サッカー、跆拳道のユニフォーム、シルム（相撲）

(103) 現代文化（子ども部屋と台所）：1面

- ・千字文
- ・ハンゲル練習帳、タイプライターなど：韓国の文字についての展示もかねる。
- ・キムチ冷蔵庫、浄水器、プラスチックバガジ：現代都市アパートの生活を展示、浄水器は薬水信仰との関係も指摘する。

(102) 民俗工芸 →海外のコリアン：1面

- ・タコ、ハナゴザ、ポクチョリ

## 표 1. 코너별 전시 내용

### A. 좌측 벽면:<역사와 문화>

(108) 무속문화 : 한국인의 감정, 희로애락을 표현하고자 한다.

- 굿방의 재현

(107) 불교문화 : 3면

- 절
- 민속 불교
- 현대의 불교

(106) 유교문화

- 제삿상 (기존) : 지금까지의 전시와는 반대 방향으로 제삿상을 놓으며 스크린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표현하며 내관자가 제사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전시한다.

- 誌石
- 양반의 세간<담뱃대, 붓 등>(기존)

(105) 기독교문화 : 2면

- 카톨릭 : 가정의 제단
- 프로테스탄드 : 수많은 종파 사회 문제로서 다루는 기독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04) 현대문화 (스포츠) → 한국에서의 일본문화 (일본 식민지 시대의 문화) : 1면

- 프로야구, 축구, 태권도의 유니폼, 씨름

(103) 현대문화 (아이들 방과 부엌) : 1면

- 친자문
- 한글연습장, 타이프라이터등 : 한국의 문자에 대한 전시도 겸한다.
- 김치 냉장고, 정수기, 프라스틱 바가지 : 현대 도시의 아파트 생활을 전시. 정수기는 약수 신앙과의 관계를 함께 지적한다.

(102) 민속 공예 →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 1면

- 연, 화문석, 복조리

- (101) イン트로ダクション（韓国文化を象徴するもの）：1面
- ・檀君肖像画：朝鮮半島五千年の歴史を象徴
  - ・壘

B.中央空間部：＜衣・食・住生活＞

- (114) 済州島民家模型（既存）
- (109) 生産用具（既存）
- (110) 食生活（既存+）
- ・食膳
  - ・キムチのかめ：木製のキムチかめ
  - ・薬棚
- (111) 人生儀礼（トル・婚礼）（既存）
- ・トル衣裳
  - ・婚礼衣裳
- (112) 人生儀礼（喪礼）
- ・喪輿
  - ・喪服

C.右壁面

- (115) チャンスン・ソッテ（既存+）
- (113) 人生儀礼：平生図（既存）

<芸能>

- (117) 仮面劇（既存）：1面
- (118) 農楽（既存）：1面

D.パティオ

- (116) 酒幕・チャントクデ

- (101) 도입부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물건): 1면  
· 단군 초상화: 한반도 오천년의 역사를 상징  
· 전

B. 중앙 공간부: <의/식/주생활>

- (114) 제주도 민가 모형 (기존)

- (109) 생산 용구 (기존)

- (110) 食생활 (기존+)

- 밥상
- 김치독: 목제 김치독
- 약장

- (111) 인생의례<돌/혼례> (기존)

- 돌 의상
- 혼례 의상

- (112) 인생의례<상례>

- 상여
- 상복

C. 우측 벽면

- (115) 장승·숫대 (기존+)

- (113) 인생의례: 평생도 (기존)

<예능>

- (117) 가면극 (기존): 1면

- (118) 농악 (기존): 1면

D. 파티오

- (116) 주막·장독대